

## 금요 양성 2024년 12월 20일

단위형제회와 나누시오.

Anne Mulqueen, OFS,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때라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인성과 신성을 지니시고, 우리와 하나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아기의 탄생 선물을 경축하는데 있어서 경탄과 기쁨과 환희를 잃어버리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223년 성탄 전야에, 우리의 사부 프란시스는 그레치오의 한 동굴에서 베들레헴을 재현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하느님의 육화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표출했습니다.

성프란치스코의 전기 제 1생애에서, 첼라노의 토마스는 성인이 그리스도의 탄생이 생생하게 살아나기를 원해서 그레치오의 동굴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재현하였다고 쓰고 있습니다. 프란시스는 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경건하게 기억을 되살려 주목되고 되새겨 지기를 바랐습니다. 거의 8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집이나 교회에 크리스마스 구유를 설치합니다. 그러니 이 크리스마스기간에 시간을 내어 마리아의 아기가 담겨져있는 구유를 응시하면서 육화의 신비를 경건하게 기억해 봅시다.

무엇이 성프란시스로 하여금 이 구유 장면을 설치하도록 자극했을까요? 성보나벤투라는 프란시스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치길 원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첼라노의 토마스는 그 아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잊혀졌었으나, 성프란시스를 통하여 은총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성프란시스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실행했습니까? 그는 동물들과 견초더미와 아기 구세주의 침대로 사용된 구유통으로 동굴을 채운 후에 그 동굴로 형제들과 마을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프란시스는 가난하고 무력한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난 연약한 하느님의 겸손과 가난을 사람들이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육화로 쏟아부어진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바랐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사람들이 햇불과 밀초를 들고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차갑지 않고 사랑으로 가득채워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쁨에 차서 구유에 누워있는 이 거룩한 아기주변에 둘러섰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구유를 응시하면서, 프란시스 교황님의 이 인용문을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 성탄 대축일에 우리가 아기 예수님 상을 구유 안에 모실 때에, 불현듯이 성탄의 장면이 생생히 되살아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어 우리 팔안에 받아 안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여림과 연약함 아래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힘을 감추고 계십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것은 진실입니다. 예수님안에서 하느님은 어린아이이시고, 이 방법으로 사랑의 위대함을 드러내십니다. 모든이에게 미소를 지으시고 두팔을 벌리십니다. [교황 교서 8]

성찰이나 논평에 덧붙여 이 내용에 대한 원천을 읽어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기도를 하고, 다음 웹사이트 <https://www.franciscantradition.org>에 들어가서, 프란시스 성인의 그레치오에서의 첫 성탄구유 재현에 대한 설명을 읽고 묵상해 보시오.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없는 분들은, 소유하고 있는 성프란치스코 전기나 인쇄된 자료 **성인 1권**에 있는 탄생 장면을 읽어보시오.

- 토마스 첼라노의 성프란치스코 전기, 30장[FA:ED, vol. 1, 254-257]

<https://www.franciscantradition.org/francis-of-assisi-early-documents/the-saint/the-life-of-saint-francis-by-thomas-of-celano/695-fa-ed-1-page-254>

- 성보나벤뚜라의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생애, 10장 [FA:ED, vol. 2, 610-611]

<https://www.franciscantradition.org/francis-of-assisi-early-documents/the-founder/the-legends-and-sermons-about-saint-francis-by-bonaventure-of-bagnoregio/the-major-legend-of-saint-francis/the-life-of-blessed-francis/1699-fa-ed-2-page-610>

**토론이나 저널 쓰기를 위한 한가지 질문:**

독서한 것이나 묵상한 것중에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보이게 되었다 -- 라는 말에 대해 기존에 했던 상상을 다시 일깨워주어서 하느님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변경하게 해 주었던 어떤 글이나 묵상이 있습니까?